**HI-ARC**

**2021-1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높은산 Git은골 | | | | | |
| 학습일시 | 210424 | 진행차수 | 3 | 학습시간/장소 | | 1시간/웹엑스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김기선(서명) | | | 김종호(서명) | |
| 박장성(서명) | 정재영(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1. 스터디 소유의 깃허브 레포지토리(https://github.com/kimchist/NPS\_GTG)에 보고서 각자 분량을 포크한 뒤, PR한다.  2. 깃 로컬 저장소에서 브랜치 다루는 법을 스스로 학습한 뒤 실습한다.  3. 책에서 설명하는 워크플로를 브랜치를 중점으로 깃러닝브랜치 사이트를 통해 구현해본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높은산 Git은골  토요일 9시에 웹엑스에서 만난다. 지금은 만나서 토론하는 시간보다는 각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초반 시기이다. 가면 갈수록 웹엑스보다는 서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했다. 시험기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깃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 Branch의 종류  Git의 브랜치 운용 모델을 설명한 ‘A successful Git branching model’ 칼럼을 참고하였다.(https://nvie.com/posts/a-successful-git-branching-model/) 브랜치에는 메인, 토픽, 릴리스, 핫픽스 브랜치가 있다. 메인 브랜치에는 배포 가능한 상태만을 관리하는 master 브랜치와 개발을 진행하는 develop 브랜치로 나뉜다는 것을 배웠다. 토픽 브랜치는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수정이 필요할 때 develop 브랜치로부터 분기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학습했다. 릴리즈 브랜치는 최종적인 버그 수정 등의 개발을 진행하며 준비가 되면 master 브랜치에 병합시킵니다. 핫픽스 브랜치는 배포한 버전에 긴급하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master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master 브랜치에 병합하는 브랜치이다. 각 브랜치 특성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Branch 만들기  Git 에서는 자유롭게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작업할 팀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브랜치를 만들고 merge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브랜치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git branch -option이 기본 형이다.  따라서 git branch “생성할 브랜치 이름”부터 시작해서, 삭제 시에는 git branch -d, 강제 삭제시에는 옵션 -D를 붙여준다. 이론 공부를 한 뒤에는 브랜치를 자유롭게 생성하여 통합하여 책에 나와있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해보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3. Branch 통합 및 삭제  브랜치를 더욱 이해하기 위하여 통합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책에 매우 설명이 잘 되어있다.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깃러닝브랜치 사이트에서 화면공유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 및 삭제를 반복하였다. 통합에는 merge, rebase가 있는데 각 명령어의 차이점에 방점을 찍어 학습하였다. 깨끗하고 선형적인 로그를 원하면 rebase, 로그를 남기고, 커밋 메시지를 다시 쓰는 리스크가 싫으면 merge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저저번주에 높은산 Git은골의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든 뒤, 모든 멤버를 초대하고 다음 주부터는 각자 깃허브를 통하여 각자 분량의 보고서를 깃허브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5주차 보고서부터는 각자 분량의 보고서를 원격 저장소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목표는 관심있는 분야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은 뒤, 스터디에서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PR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깃허브의 핵심 기능에 한층 가까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 | | | | |
| 활동 후기 | 기선:  예빈:  장성:  깃과 깃허브의 공부는 실습이 전부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서 배웠던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브랜치를 다루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브랜치가 어떻게 실무에서 쓰이는지 아는 과정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도 깃을 쓸 때에는 이제 브랜치를 만들고 볼 것이다. 잘 안되면 삭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주에 깃 GUI인 gitkraken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가히 혁명적이었다. gitbash로 CLI만 써보다가 GUI를 쓰니 확실히 이해가 잘 되었다. CLI를 배척하면 안되겠지만 말이다. GUI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면 깃크라켄, 명령어 실습을 할 때에는 gitbash를 이용할 생각이다.  종호:  재영: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